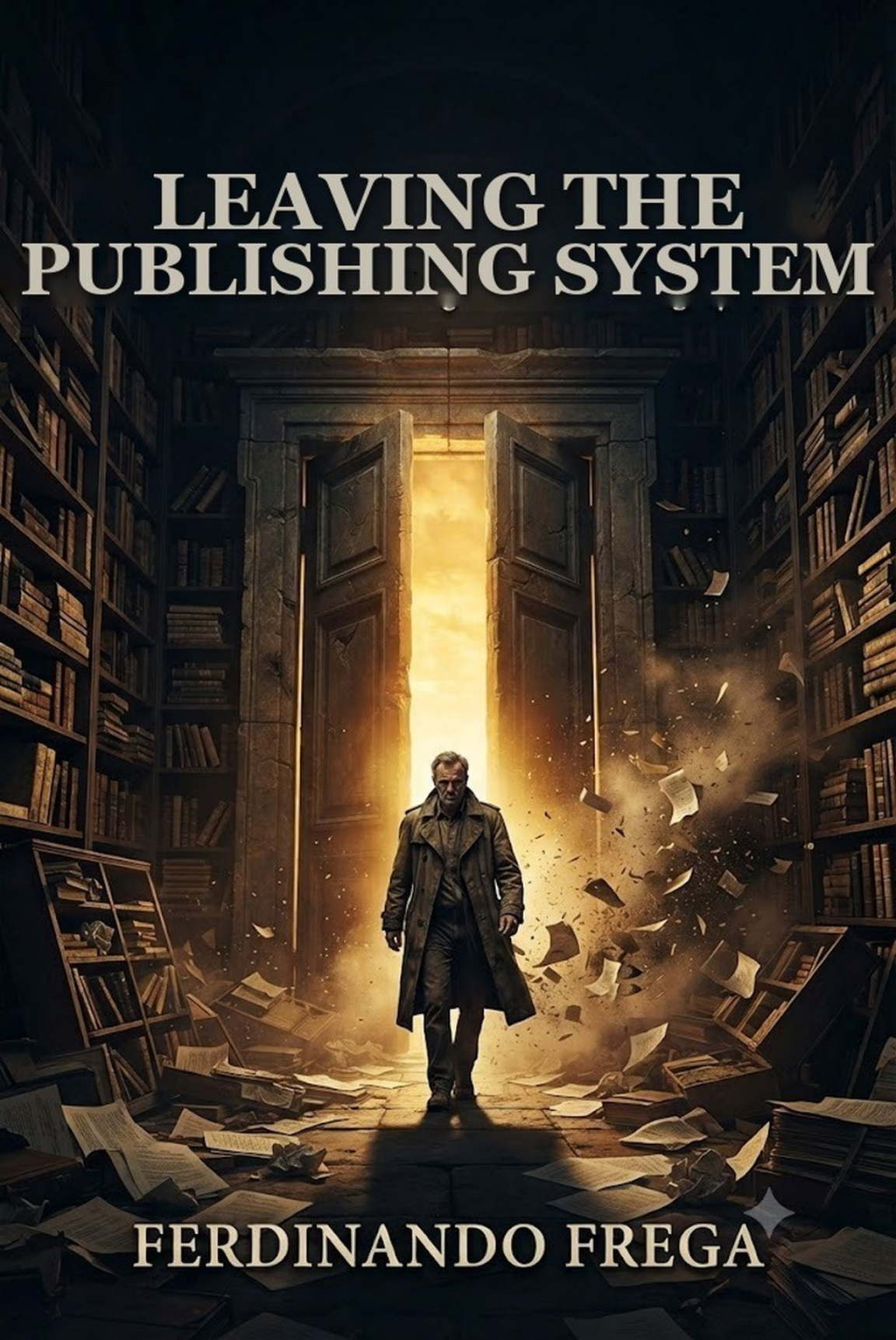
LEAVING THE PUBLISHING SYSTEM



FERDINANDO FREGA

출판 시스템을 떠나다

Roots & Memory 시리즈의 아홉 번째 권: 출판 시스템을 완전히 떠나는 일에 관한 짧은 문서 — 허락 없는 접근, 무료 배포, 그리고 발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 내는 규율.

판권 정보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 The Fifth Blade

행동 코드(Behavioral Code)의 서사 개척자. 그는 단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1달러 출판 생태계를 세웠다: 금융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문제가 있다.

ONEDOLLAR-STORIES 생태계 안에서 편집·기획되었다. 디지털 아키텍처: NAPLES-POST · NOASPECTTIME · ONEDOLLAR-STORIES. 2026년 초판 발행. 디지털 읽기에 최적화된 깔끔하고 현대적인 조판. 미국에서 출간.

저작권 고지

© 2026 Ferdinando Frega / Frega Editore. CC BY-NC-ND 4.0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된다.

무료 열람

편집자 노트

이 책은 무료다. Ferdinando Frega가 쓴 모든 책이 그렇듯이. 전략으로서가 아니다. 홍보의 몸짓으로서가 아니다. 시장의 결정으로서가 아니다.

무료인 이유는 단 하나다: 문학은 즐거움이고, 읽기에는 값이 없다.

글로 쓰인 말은 자율적인 생각이 되는 관념을 전달할 수 있는 여전히 유일한 도구다 — 조작도, 전환도, 소비를 위해 설계된 상품도 아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당신 안에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의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이 이 작품이 요구하는 유일한 거래다.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Naples-Post, 2026

비평 사설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독자를 찾지 않고, 적응이나 타협 없이 하나의 구조를 견뎌 낼 수 있는 이들을 가려낸다. 여기서 독자는 문턱이 된다 — 위안이나 양보를 구하지 않고 텍스트와 마주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만 열리는 문턱.

문턱으로서의 독자

독자는 고객이나 추종자가 아니라 현존에 대한 도전이다. 텍스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작품은 취향이 아니라 회복력에 의해 선택된다.

출판 시스템의 거부

이 프로젝트는 주목을 위한 최적화, 감정적 지렛대, 알고리즘적 가시성, 시장이 이끄는 단순화를 거부한다. 유행을 좇지 않고, 마케팅 논리에 맞추지 않으며, 업계의 리듬 안에서 자리를 찾지 않는다. 그것은 시스템의 중력 바깥에 존재하며, 자신의 축 위에서 자신의 속도로 움직인다.

선과 악 사이의 선

텍스트는 날카로운 경계를 긋는다: 자신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선택하는 이들과, 책임을 피하려고 선함의 겉모습 뒤에 숨는 이들.

선은 현존을 요구하고 흔히 보이지 않은 채 남는다. 악은 적응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섞여 든다. 이 프로젝트는 도덕주의 없이, 그저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 비대칭을 드러낸다.

의도된 행위로서 시스템을 떠나기

출판 시스템을 떠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자리매김의 문제다. 시스템은 순응에 보상하므로, 물러난다는 것은 승인을 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짓는다는 뜻이다. 자율에는 대가가 따르고, 이 프로젝트는 그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서문

이 책은 시작하지 않는다. 하나의 자리를 연다.

『출구 문서』는 모두가 읽도록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도발이 아니다 — 구조적 사실이다. 모든 배포, 분류, 추천 시스템은 텍스트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다. 이 텍스트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기다린다.

이어지는 것은 출구에 관한 문서다 — 반항으로서도, 실패로서도 아닌, 의도된 자리매김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규율 잡힌 기업 시스템 가운데 하나에서 보낸 18년은 무엇보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맞지 않는 구조 안에 머무는 대가는 한꺼번에 치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천천히, 조금씩, 더 이상 내줄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치러진다.

출판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설계된 그대로 정확히 작동한다. 이 텍스트는 그 바깥에서 짓는다 — 허락 없이, 보증 없이, 사과 없이.

여기의 구조가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잃는 것은 없다. 구조는 남는다.

Ferdinando Frega

접근

이 책은 무료 열람으로 배포된다. 구매도 필요 없다. 가입도 없다. 전환 퍼널도 없다. 접근의 몸짓이 곧 배포의 몸짓이다 — 둘은 같은 행위다.

배포 플랫폼에 1 USD라는 상징적 가격이 표시되는 곳에서,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문턱의 표지로 기능한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무게를 지닌다는 신호다. 핵심은 비용이 아니다. 건너는 일이다.

이 작품은 Gillette Narrative 도서관의 일부다 — 두 개의 채널을 중심으로 세워진 무료 열람 디지털 아카이브: Gillette 채널(기업과 직업의 서사)과 Narrative 채널(자전적·철학적 작품).

GILLETTE 출구 문서

출판 시스템을 떠나기 위한 지침

이 텍스트는 독자를 찾지 않는다. 독자를 걸러 낸다.

설득하거나, 위로하거나, 즐겁게 하도록 설계된 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접근 지점이다.

당신은 설득당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당신 쪽으로 휘어지지 않는 구조 안에 설 수 있는지 결정하러 여기 온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기대에 맞추지 않는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위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속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접근은 친절이 아니라 정렬에 달려 있다. 당신은 구조를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한다. 설득은 없다.

이 프로젝트는 독자를 좇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낸다. 들어오는 이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독자는 문턱이다

독자는 고객이 아니다. 독자는 청중이 아니다. 독자는 문턱이다.

문턱은 박수 치지 않는다. 문턱은 협상하지 않는다. 열리거나, 닫힌 채로 남을 뿐이다.

당신은 동의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맞서려고 읽는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면, 텍스트는 제 일을 한 것이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텍스트는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배제가 아니다. 정밀함이다. 모두에게 맞추는 구조는 구조로 남을 수 없다. 일관성을 지키는 구조는 가려낸다.

선별은 오만이 아니다. 생존이다.

이것은 출판물이 아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출판 생태계에 속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지도, 주목을 위해 설계되지도, 편집 기준에 맞춰 재단되지도 않았다.

출간 캠페인은 없다. 홍보의 안무도 없다. 기관의 보증도 없다.

구조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준비되었을 때 나타난다. 시장이 요구할 때가 아니라. 업계의 리듬이 속도를 정하지 않는다.

침묵은 전략이 아니다. 침묵은 조건이 아니다.

유행을 찾는다면, 여기서 찾지 못할 것이다. 일관성을 찾는다면, 찾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거부하는 것

이 프로젝트는 거부한다: 주목을 위한 최적화, 접근성을 위한 단순화, 감정적 조작, 지적 장식, 알고리즘 의존.

박수를 거부한다. 조급함을 거부한다. 설득의 논리를 거부한다.

이 작품은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개선을 약속하지 않는다. 소속을 약속하지 않는다. 구조를 내놓는다.

구조는 독자에게 맞추지 않는다. 독자가 구조에 맞춘다.

선

더 이상 혼동이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한쪽에는 자신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아예 선

택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부르는 이들이 서 있다.

이것이 그 선이다.

선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현존을 요구한다. 절제를 요구한다. 상실을 요구한다. 선은 좀처럼 박수를 받지 않는다.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반대로 악은 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적응한다.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평범함 속에 섞여 든다. 악은 소리치지 않는다. 악은 설명한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세상일이 원래 그렇다."

실패는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이상화한다. 실패는 하나의 전진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나의 교훈으로. 성공을 향한 필수적인 한 걸음으로.

그러나 실패는 가르치지 않는다. 실패는 드러낸다. 준비를 드러낸다. 환상을 드러낸다. 인식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드러낸다.

고통은 지혜를 낳지 않는다. 성찰이 낳는다. 상실은 명료함을 낳지 않는다. 구조가 낳는다.

천 번 실패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 있다. 한 번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실패는 고귀하지 않다. 실패는 중립적이다.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가 유일한 변수다.

출구는 하나의 자리다

시스템을 떠나는 것은 반항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리다.

출판 시스템은 고장 나지 않았다. 설계된 그대로 정확히 작동한다. 예측 가능성에 보상한다. 순응에 보상한다. 기존 서사와의 정렬에 보상한다. 자율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적응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 바깥에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접근이 아니다. 문제는 비용이다. 모든 시스템에는 값이 있다. 대부분의 작가는 그 값을 천천히 치른다. 너무 천천히 치러서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출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출구는 허락 없이 짓는 것이다. 보증 없이 출간하는 것이다. 박수 없이 서 있는 것이다.

시장은 당신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우선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관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어느 것도 건축을 바꾸지 않는다.

당신은 그들의 구조 안에서 짓거나, 그 바깥에서 짓는다. 둘 다 정당하다. 그러나 둘은 같지 않다.

이 작품이 내놓는 것

이 작품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더 단순한 무언가를 내놓는다.

구조. 일관성이 협상되지 않는 자리. 말이 승인을 위해 최적화되지 않는 자리. 침묵이 아직 가치를 지니는 자리.

동의하라는 요구는 없다. 소속되라는 요구도 없다. 생각하도록 초대받을 뿐이다.

구조가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잃는 것은 없다. 구조는 남는다.

맺음

출판 시스템을 떠나기 위한 지침

이것은 독자를 찾는 책이 아니다. 첫 줄부터 그렇게 말한다 — 그리고 진심이다.

Ferdinando Frega가 『Gillette 출구 문서』에서 세우는 것은 관습적인 의미의 선언문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선언이다: 설득하기보다 걸러 내고, 유혹하기보다 가려내는 텍스트. 위로하고, 전환시키고, 붙잡아 두도록 설계된 책들로 포화된 출판 지형에서, 이 작품은 정반대로 한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기다린다.

건축은 의도적이다. 각 장은 하나의 문턱으로 기능한다 — 「독자는 문턱이다」, 「이 프로젝트가 거부하는 것」, 「선」, 「출구는 하나의 자리다」 — 그리고 누적된 효과는 논증이 아니라 압력이다. 독자는 하나의 논지를 따라 안내받지 않는다. 독자는 하나의 구조 안에 놓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남겨진다.

산문은 차갑지 않으면서 정확하다. Frega는 짧은 서술 단위로 쓰고, 그것들은 칼날의 획처럼 쌓인다 —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하나하나가 최종적이다. 수사적 장식도, 감정적 지렛대도, 기존의 어떤 문학 전통에 속하려는 시도도 없다. 거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적이고 일관된다.

「선」은 가장 깊이 베는 장이다. 자신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다르게 선택하는 이들과, 아예 선택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부르는 이들 사이의 구분 —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해부학이다. Frega는 대부분의 글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도덕적 건축에 이름을 붙이며, 그것을 도덕주의 없이, 판단 없이, 자비 없이 해낸다.

「실패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가장 전복적인 대목이다. 실패를 통과의례로 성전화한 문화 속에서, Frega는 향수 없이 그 신화를 해체한다. 실패는 중립적이다. 성찰이 변수다. 그 구분은 단순하고, 구조적이며, 반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약점은 — 굳이 찾아야 한다면 — 이 책의 강점이기도 하다: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것. 방향, 서사의 곡선, 해결을 찾는 독자는 여기서 그것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구조는 휘지 않는다. 이것은 간과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책의 도달 범위를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자리에 있는 이들로 제한한다 — 물론, 그것이야말로 정확히 요점이다.

『Gillette 출구 문서』는 가장 드문 종류의 텍스트다: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른 무엇이 되기를 거부하며,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텍스트.

구조를 알아보는 이들은 들어올 것이다.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지나갈 것이다. 두 결과 모두 예상되었다.

편집국 비평 — Naples-Post, 2026

Ferdinando Frega